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글로벌 車업계 앞다퉈 英 탈출

도요타 “영국 생산 철수 검토할 것” 혼다, 공장 폐쇄… 낫산, 계획 철회 BMW, ‘미니’ 생산라인 이전 시사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브렉시트)을 2주여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종료나 축소를 밝히는 등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영국에서의 생산 철수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도요타는 영국 중부 바나스톤에 완성차 공장, 디사이드에 엔진 공장을 갖고 있으며 두 개 공장에서 3200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바나스톤 공장은 1992년 생산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12만9000대를 생산했다. 이는 영국 전체 자동차 생산대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도요타의 영국 공장은 부품의 50% 정도를 EU 회원국과 터키에서 조달하고 있



영국 솔리헐에 위치한 재규어랜드로버 생산공장

/연합뉴스

으며, 완성차의 90%를 EU에 수출한다. 현재는 수출관세가 없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혼다는 오는 2022년까지 영국 스완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혼다는 유럽에서 판매 실적 부진으로 직자가 계속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유럽 유일 생산 거점인 영국 공장의 문을 닫기로 결심을 굳혔다.

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낫산은 지난해

브렉시트 여파로 자동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46% 급감했다.

BMW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영국에서 ‘미니(MINI)’ 차량의 생산을 중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영국에 있던 생산라인을 오스트리아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미니 차량 등을 생산하는 옥스퍼드 인근 카울리 공장에서는 연간 20만대 이상의 차량이 생산된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만 4500여명에 달한다. 생산 라인을 철수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럭셔리 영국 브랜드인 롤스로이스는 계속해서 영국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포드는 영국 내 엔진 생산 시설을 축소시켜 일자리를 400개 줄이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영국 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재규어랜드로버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45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있는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으로의 차량 수출이 막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브렉시트가 이뤄지고 문제가 구체화된다면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렉시트 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는 12일 진행된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 1월 브렉시트 1차 승인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영 FTA(자유무역협정)를 다시 맺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예전과 같이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영국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세조정 등 유예기간을 거쳐 1년 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인스타그램 대표, 첫 해외방문국가로 韓 선택 “K-콘텐츠 세계적 인기… 커머스 사업 집중”

아담 모세리 대표 기자간담회

케이팝·e스포츠·영화 흥미로워
인센티브 도입 등 불법판매 예방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이 관심 있는 상품을 인스타그램에서 찾기 원하고, 많은 크리에이터가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프로모션 하고 있다”며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쇼핑 관련한 게시물을 어떻게 찾고 구매하도록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쇼핑 관련도구를 한국에서 선보이며 커머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제품명과 가격을 바로 확인하고, 각 브랜드의 온라인 매장으로 이동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인스타그램의 페이스북 카니발리제이션(한 기업의 신제품이 기존 주력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선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다.

모세리 대표는 “광고주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에 광고할 수도 있고, 한 곳에만 할 수도 있는데 한 부분에선 통합성을, 다른 부분에선 차별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판매에 대해선 “많은 인플루언서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인스타그램에서 상품을 홍보하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판매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적극 공개하고 있다”며 “모든 인플루언서가 이를 따르는 건 아닌데, 광고주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인스타그램은 올해 커머스 사업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모세리 대표는 “사람들

美-中 무역합의 초읽기… 韓 경제 봄볕 드나

불확실성 해소·교역 회복 등 기대 반도체·車 산업 반사이익 가능성 ‘합의이행 갈등’에 셈법 복잡할 듯

“오직 외세에 항거한 나라만이 올바른 시각으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영화 ‘아편전쟁’의 한 대목이다. 영화엔 청나라 황제의 명으로 엄청난 양의 아편을 몰수해 불태운 임칙서(林則徐)가 등장한다. 하지만 결과는 나빴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홍콩을 빼기고, 더 많은 항구를 열어 주는 굴욕을 당한다.

시장의 시선이 21세기판 아편전쟁으로 불리는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에서 대단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아편 연기에 허우적 대던 한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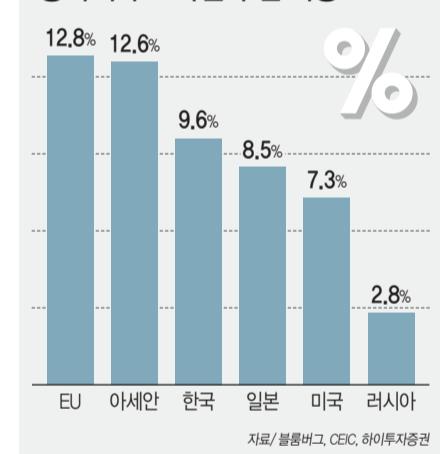
셈법은 복잡하다. 장밋빛 전망은 ▲미·중 교역 정상화에 따른 낙수효과 ▲중국의 대미 제품 수입 확대에 따른 미국 경기 모멘텀 강화 ▲중국 내수시장 확대 ▲중국 신산업 정책 지속 추진 ▲중국의 경기 부양 본격화 등에 기대를 건다. 반면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확대로 한국의 연수출액이 3.1% 감소할 것이라 부정적 견해도 있다.

◆교역량 회복, 반도체·조선 청신호

‘스몰 오픈 이코노미’(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 전쟁 자체가 ‘페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과 다름 없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을 전망치를 2.1% 까지 내렸다. 무디스는 “투자 사이클 악화와 글로벌 무역 감소가 한국 경제의 모멘텀을 해쳤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요 침체가 한국의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불씨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시

중국의 주요국별 수입 비중



내수성장은 한국으로의 여행, 콘텐츠 활용 등으로 즉각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 화학 부문은 미국산 화학제품의 점유율 확대로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美제품 점유율 확대, 중국 투자 ↓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를 인용, 중국이 향후 5년간(2019~2024년)에 걸쳐 모두 1조 3500억달러(약 1519조 4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한국은 해마다 수출액의 3.1%인 230억달러(약 25조 9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280억달러 보다는 적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WSJ는 중국이 5년간 1조 35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할 것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스티븐 민努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1조 2000억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돼 무역전쟁의 영향은 가라앉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미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해야 하는 만큼 중국 시장에 의존해온 미국의 동맹국이 수출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미중 무역 협의가 대중의 존도가 심한 동맹국의 경제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 이행 여부도 문제다. 중국의 기술이 전강요, 지식재산권 도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더라도 구속력 있는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협의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률을 높여간다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이겠지만 아마도 중국은 미중 협의 이후에 오히려 부채축소(데레버리징)와 경제성장을 하향(연착륙)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